아키타 쌀, 미인, 온천 그리고 스키

아키타현 소개

아키타현(秋田県)은 수도 도쿄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450km 떨어져 있으며, 베이징, 마드리드, 뉴욕 등 세계 대도시와 거의 같은 위도(북위 40도)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은 11,637㎢로 일본에서 여섯번째로 크며, 총 인구는 약 100만 명이다. 기후는 여름이 짧은 북방형으로 계절 구분이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오노 고마치(小野小町, 헤이안 시대의 여류 시인)로 대표되는 '아키타 미인'이 유명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아키타 삼나무 숲', 맛있는 '아키타 쌀', 그리고 '아키타 술' 등 아키타의 자랑인 자원이 풍부하다.

온천의 고장 아키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온천 지역인 아키타현.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곳은 다마가와(玉川) 온천과 온천마을인 뉴토온천향(乳頭温泉郷)이다. 다마가와 온천은 일본 전역에 알려진 명탕(名湯: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온천)으

로, 불치병을 고쳤다는 일화가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하는 일본 굴지의 치유온천이다. 용출량이 분당 9000리터로 단일 원천으로는 일본 최대를 자랑한다. 1.2ph의 강산성으로, 100% 원천수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따끔따끔하다. 뉴토온천향은 비탕(秘湯)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쓰루노유(鶴の湯), 다에노유(妙乃湯), 가니바(蟹場) 온천, 오가마(大釜) 온천, 구로유(黒湯) 온천, 마고로쿠(孫六)온천, '휴가촌(休暇村: 국립공원 안의 휴양 시설) 뉴토온천향'의 비탕, 명탕이 산재해 있는 온천 지역이다. 가을과 겨울, 단풍과 눈에 둘러싸여 비탕과 명탕을 즐길 수 있다.

아키타의 식문화

아키타현은 쌀의 고장이자 술의 고장이기도 하다. 사냥꾼들이 밥을 으깨 막대기에 감아 구워 먹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리탄포'. 이것과 히나이(比内: 아키타현 북부에 있는 정(町)) 토종닭, 우엉, 잎새버섯, 파, 미나리, 실 곤약

등을 간장 등의 조미료와 함께 육수에 넣고 끓이면 '기리탄포 나베'가 완성된다. 대롱 모양의 쫀득쫀득한 기리탄포에 히나이 토종닭의 국물이 스며들어 입 속에서 살살 녹는데, 그 자체가 바로 아키타의 맛이다. 맛있는 술의 왕국 아키타현은 주조업(酒造業)의 역사가 길어, 창업한 지 100년이 넘는 양조장이 전체의 3분의 2인 25곳에 이른다. 아키타는 쌀의 고장답게 원료인 쌀의 확보가 쉬우며, 춥고 눈이 많은 겨울이 길어 물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청주를 빚는 데 최적의 환경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니혼슈 콘테스트에서도 아키타현의 술이 많은 상을 받아, 세계에 통하는 높은 품질을 증명하였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아키타 축제

아키타의 축제는 매년 8월 개최되는 아키타 간토 마쓰리(竿燈祭り)와 오마가리 하나비(大曲の花火)가 있다. 도호쿠(東北) 지방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일본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간토 마쓰리는 액을 막고, 목욕재계로 부정(不淨)을 씻어내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부터 계승되고 있다. 46개의 제등이 달린, 높이 12m에 무게가 50kg나 되는 거대한 간토(竿燈, 제등을 매단 대나무 장대)를 사시테(差し手, 간토를 조종하는 사람)가 손바닥이나 이마, 허리 등에 올려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밤, 빛나는 벼 이삭 같은 간토가 대로를 가득 메우며, 마치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일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불꽃경기대회 '오마가리 하나비'. '매달 불꽃을 쏘아 올리는 도시' 다이센시(大仙市)에서 100년 넘게 치러지고 있는 역사 깊은 불꽃대회로, 일본에서 선발된 일류 하나비시(花火師), 즉 불꽃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며 쏘아 올린 수준 높은 불꽃 놀이 기술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회의 절정으로는 '대회에서 제공한 불꽃' 인 와이드 스타 마인(Wide Star Mine)으로 폭이 500m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불꽃이 쏘아 올려지며, 행사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인구 4만이 채 안 되는 다이센시 오마가리(大仙市 大曲)에 이 날만 70만 명이 모여, 빛과 소리의 합동 공연을 즐긴다.

매력적인 지역 열차

아키타현에는 리조트 시라카미, 아키타 내륙종단철도, 유리(由利)고원철도 등 매력적인 지역 열차가 있다.

리조트 시라카미는 총 연장 147.2km의 JR 고노선(五能線)으로 일본해 연안을 따라 시라카미 산지(白神山地)를 조망하며 달리는 인기 열차다. 넓고 개방적인 차창으로 펼쳐지는 세계자연유산을 바라보며, 일본해의 풍파가 만들어 내는 기암괴석에 놀라게 된다. 아키타 내륙종단철도는 다카스역(鷹巣駅)에서 가쿠노다테역(角館駅)까지 94.2km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지역 노선으로, 애칭은 '아키타♡미인 라인'이다. 20개 터널을 지나며 322개 다리를 건넌다. 단풍철에는 활엽수인 붉은 단풍과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는 침엽수의 짙은 초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마타기(マタギ, 사냥꾼 집단) 문화의 발상지 등, 모리요시(森吉) 산을 중심으로 '산의 리조트 열차'가 일본의 원초적 풍경으로 안내한다. 유리고원철도는 초카이(鳥海) 산을 배경으로 광활한 전원 풍경 속을 달리는 총연장 23km의 지역 철도 노선이다. 초카이산을 올려다 보며 선로 주변의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다('마고코로 열차'는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집필 : 아키타현 관광진흥과, 협력 : CLAIR, Seoul)